

● 진흥컬럼

# 액정TV의 색다른 효용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 液晶TV를 보면서 이발

이 세상에 지루한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출근시간의 버스라든가, 약속시간이 10분도 더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데이트 상대자, 발표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입시합격자 명단.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지루한 것의 으뜸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꿈쩍 달짝도 안하는, 온통 주차장화된 명절날의 고속도로다. 물론 10여시간이나 걸리는 미국행 제트여객기라든가, 서울서 부산까지의 급행열차도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

또 가까운 일로서는 이발소에서의 산발시간이나 미용원에서의 파마시간도 지루한 시간의 챔피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지루한 시간도 그리 단조롭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다름아닌 소형의 액정TV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에서는 이미 5인치 크기의 액정T

V(TV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5인치 즉 약 12.7cm)가 이발소에 나타나 손님들 지루함에서 구해내주고 있다. 車載用이라해서 승용차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손쉽게 달아둘 수 있는 차재용 키트가 달려있어 나사못 하나로 손쉽게 손님앞에 고정시켜 둘 수가 있다. 따라서 설치도 간단하거나와 일요일 등 이발소가 쉴때는 손쉽게 떼어내서 마이카에 옮겨 놓을 수도 있다.

채널은 리모콘(Remote Control 원격조정장치)으로 손님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음성은 헤드폰, 또는 이어폰으로 듣기 때문에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남자들의 이발보다도 여자들의 파마는 시간이 걸림으로 무척이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밀려온다고 한다.

## VTR도 연결시켜 손님을 즐겁게

또 손님들 중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 이발하는 동안 VTR에 연결시켜 보고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 손님들 위해서는 VTR에 연결시켜 주고도 있다. 그 결과 어떤 손님들은 머리카락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일찌감치 이발소를 찾아오는 사람마저 있어 생각치도 않았던 플러스 알파마저 생겨 장사는 날로 번창해가고 있다. 조그만한 아이디어가 이발소 번창을 가져온 셈이다.

또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별도로 대형TV가 마련되어 있다. 어찌든 이 이발소는 손님이 갖는 의자마다 그 앞에 액정TV를 설치해 놓으므로서 번창을 하고 있다. 액정TV에는 이런 용법, 이런 효용도 있었던 것이다.

## 차재용TV로 교통체증도 참을만해진다.

사실은 이런 액정TV는 이미 자동차에 널리 탑재되어 기나긴 주말여행때도 사람들에게 위

안을 주고 있다.

예컨대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어 국내 고속도로가 온통 주차장화가 되고 장시간 꼼짝달싹도 하지 않을 때 액정TV는 크나 큰 효용을 발휘한다.

더구나 그 액정TV가 도시락통 크기의 휴대용의 VTR과 콤비가 된다면, 채널싸움에 시달릴 필요도 없게 된다. 젊은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서로 채널을 달리해서 TV 또는 녹화테이프를 즐길 수가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음성은 이어폰 또는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액정TV는 그 보급의 초기에서 처럼 단순히 휴대용으로 포켓에 넣고 다니는 AV(시청각)機材일뿐만 아니라, 지루한 시간을 달래주는 새로운 기기로서 여러경우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예컨대 다방에서라면 약속시간이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는 상대방을 기다리느라 옛날 같으면 유미를 곤두세웠던 아가씨들이 지금은 핸드백에서 액정TV를 끄집어내서 좋아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을 응원하느라 시간가는 줄조차 모르게 된다. 이마살을 찌프리고 짜증어린 얼굴대신 액정TV는 미녀들의 이마살을 펴주고 명랑한 얼굴로 바꾸어 주었던 것이다.

### 제트여객기에도 모습을 보인 액정TV들

그 액정TV는 최근에는 제트여객기에도 선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 NW(North-West) 항공사는 모든 좌석에 액정TV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모든 좌석의 앞좌석 후면에 5인치 크기의 액정TV를 마련해 놓고 손님이 마음대로 채널을 골라보게 되어 있다. 채널은 전부 6개나 된다. 또 물론 음성은 옆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헤드폰으로 들게 되어 있다.

액정TV를 택한 이유는 액정TV는 안길이가 긴 브라운관식 TV와는 달리 얇팍하기 때문에 손쉽게 앞 좌석 후면에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 액정화면은 대각선길이 5인치 내지 6인치의 것이라면 무척이나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면서도 값싸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예컨대 5인치 크기이면서도 화소(畫素, Pixel, Picture Cell)수가 12만에서 16만개 수준의 것이 상품화되어 무척이나 선명한 고화질의 칼리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의외로 답답한 비행기여행

사실 국내선이라면 모르되 국제선 항공여행이란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여행인 것이다. 창가로 내려다 보았댔자 국제선은 고도 1만에 전후의 고공을 날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흰구름뿐인 것이다. 간혹가다 구름이 없는 날에는 바다나 머나먼 10km(1만m는 10km)아래쪽의 땅이 희미하게 보일 뿐 몇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경치인 것이다.

그렇다고 비행기안을 돌아다닐 수도 없다. 비행기안은 아무리 길어보아뻗자 가장 큰 여객기인 보잉 747의 경우도 全長은 70.51m에 불과함으로 좌석부분에 뚫린 복도의 길이는 기껏해야 50m도 될까 말까이다. 열차의 경우라면 걸어서 다른 차내에 가거나 또는 식당에라도 가는 등 바람도 쉴 수 있으나 비행기내서는 새둥지 안에 갇힌 새모양 행동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새둥지 같은 공간에서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좌석에 앉은채 날라다주는 식사를 들거나 좌석을 뒤로 기울인채 잠자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따로 없었던 것이다.

사실 1960년대만 해도 비행기여행은 이렇게 따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 비행기 앞쪽에 커다란 스크린을 달고 영화를 보여줌으로서 그나마 지루함을 다소 완화시켜주긴 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가지수가 하나 뿐임으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눈을 감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또 그렇다고 책을 볼려고 창문의 커튼을 열어채친다면 낮의

경우 스튜어디스가 당장 달려와 커튼을 닫으라고 호통(?)을 친다. 한편 독서용램프는 있기는 하나 너무도 어두어 조명도가 시원치 않다. 결국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눈을 감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런 일은 사실은 현재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달 필자가 독립국가연합(CIS, 舊소련)의 모스크바를 왕복할 때도 실제로 당한 일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그 영화(요새는 영화대신 投射型의 TV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상영)를 보는 사람은 몇 안되고 대부분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즉 몇 안되는 승객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승객은 억지로라도 눈을 감아야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NW社를 위시로 미국서는 여러 항공사가 앞다투어 각 좌석마다 액정TV를 마련해 놓음으로서 이 어처구니 없는 만행(蠻行)을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 고속전철에서도 채택해야 할 개별좌석의 액정TV 설치

이런 액정TV는 항공기에서 뿐만 아니라 기선이나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에서도 채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는 본질적으로 바다위를 달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바다와 수평선과 하늘뿐이기 때문이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서울·부산간을 2시간안에 달릴 경우 고속전철 노선의 1/3은 지하이거나 터널로서 이 구간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곤 압축의 벽뿐이기 때문이다.

또 고속전철은 유리창이 밀폐식이여서 창문을 열어 제칠수도 없다. 물론 구름밖에 안보이는 항공기와는 달리 바깥경치는 볼만은 하지만, 잦은 터널 때문에 그 경치도 오랫동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행기때와 마찬가지로 앞좌석 뒷면에 마련해 놓을 액정TV이다.

더구나 서울이나 大田에 경우 이 고속전철

계획표에 의하면 십몇km의 길이는 지하선로로 되어 있다. 그 지하선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창밖에는 아무것도 안보인다. 보인다면 그것은 불을 켜놓은 차내 광경뿐일 것이다.

따라서 이때야말로 액정TV는 그 실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가령 서울역을 출발할 때 캄캄한 지하선로를 지나가는 사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지금 그 기차가 지나가는 지상의 경치를 미리 녹화해 두었다가 보여준다면 손님들은 크게 즐거워 할 것이 틀림이 없다.

또 지상을 달리는 경우라도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금천이라던가 영주 또는 추풍령 부근이라면, VTR로 그 고장의 경치나 도시의 모습 또는 산업이나 관광지 또는 특산물의 소개를 하는 화면을 녹화해 두었다가 방영을 한다면 그 고장의 PR도 되고 관광안내도 될 것이다.

### 액정TV의 좀더 적극적인 활용을

또 이것은 비단 지상을 달리는 고속전철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를 날아가는 제트여객기에서도 그 채택을 권장할만한 일들이다.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는 일등석에 한해서는 국내선에서도 40인치 전후의 투사형TV를 써서 각종 비행정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적극성을 띠워 일등석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앞쪽 뒷면)에 액정TV를 설치해서

비행속도

비행고도

목적지도착까지의 남은 시간

외부온도

도착지의 기상

지도(애니메이션으로 비행중에 있는 비행기의 위치변경 표시)

등등의 비행정보를 알려줄 것은 물론, 현재 통과중에 있는 道나 도시의 전경, 산업, 관광, 특산물, 통계 등을 비디오테이프로 승객에게 알려줄 친절을 베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 산업이나 자립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손님에게는 손님대로 따분하고 지루한 여행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액정TV의 이와 같은 효용은 이 이외에도 고속버스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비너스와 엘절(Angel) 호과 같은 수중익선(여수·부산간 또는

목포·제주간 연락선)에서도 쓸 수가 있다.

또 액정TV는 교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게 하는 장소나 업소, 예컨대 이발소나 미용원 외에도 병원의 대합실(대기실) 등등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가전업계, 에너지절약 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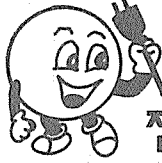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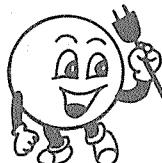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가전산업협의회에서는 하절기 냉방용 전력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가전업계 광고담당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대 국민 절전홍보 등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였다.

#### 1. 광고의 축소

○ 냉방기기류의 현행 신문 전면광고 축소 : 15단→10단 이하

#### 2. 광고 내용

- 모든 가전제품 광고 중 절전 문안 및 캐릭터 삽입
  - 절전문안 : “에너지 절약 더 밝은 경제”
  - 캐릭터
    - 신문 : 10단이상 : 가로 7cm (5/4~) 5단이상 : 가로 4cm
    - TV : CF 마지막 부분 1.5초 내에서 삽입 (5/10~)
- 캐릭터 : 모든 가전제품 광고시 삽입

현 행 (4. 9일 합의)	강 화 (4. 30일 합의)
 <p>전기를 아껴쓰시다</p>	 <p>에너지 절약 더 밝은 경제</p>